

“살아있는 한강과 푸른하늘을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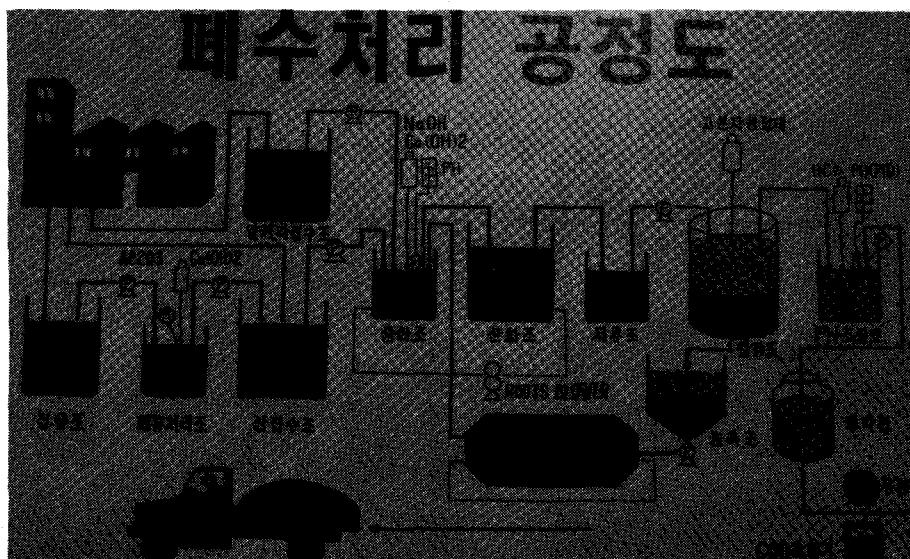
1952년 신생금속공업으로 창립되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철강 보국의 현장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위치한 동부제강(주) 오류공장을 찾았다. 냉간압연강판과 각종파이프를 생산하여 년간 3,000억원 이상 판매제품중 절반이상을 수출로 수출입국을 대표하는 회사답게 생산된 제품들이 차량에 실려 바쁘게 나가고 있었다.

안내를 받아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부 안전과를 찾았다. 83년 12월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환경공해관리 시범업소 지정, 85년 5월 금속제품 제조업 부분에서 한국 최초로 무재해 300만시간(384일)을 달성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무재해 300만시간 달성탑」을 수상, 85년 9월에는 강서소방서장으로부터 우수 자위소방대로 지정, 이러한 업적을 기반으로 무공해 무재해 무화재의 3 무운동 목표아래 공해, 사고, 화재가없는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전 사원이 단결하고 있다는 설명에 공감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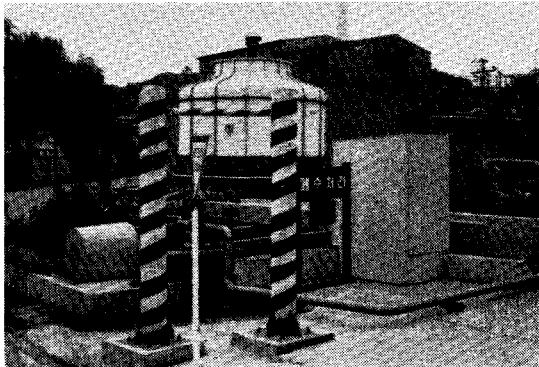
지금은 환경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급

기사 2명과 폐수 폐유처리를 1일 5명씩 2교대로 관리하는 폐수 폐유처리반과 대기 소음방지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구성되어 깨끗하게 처리된 방류수와 연기 하나 보이지 않는 연돌이 우뚝 서있지만 초창기엔 미비된 설비와 기술, 경영자의 인식부족에서 많은애로점이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계속적인 설비투자 및 보완으로 많은 개선을 하였는데 금년에 3억원 87년에 4억원 정도의 설비보완투자로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출 계획이라고 한다. 공해방지처리 및 설비제원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로 Multicyclone 집진기 5대, Cyclone 집진기 4대, Scrubber 4대 Bag Filter 4대, 중력 집진기 1대, 폐수 폐유처리(공정도 참조) 시설로 1일 냉간압연공정에서 배출되는 압연폐유, Emulsion 60m³을 처리하는 폐유처리시설(분해, 응집, 침전)과 폐수처리(산화침전)능력 2,800m³/일인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기 할만한 설비로 방류수의 pH 조정을 위하여 비례제어 System(78년 700만원에 설치)에서 86년 9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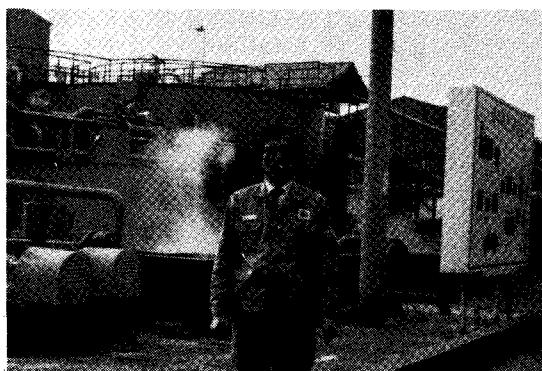
3,000만원 투자하여 PID System(비례 미분 적분 방식)으로 설비를 보완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회사를 위해서도 완벽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87년에 부족한 짐수조 증대, 방류수를 여과하는 Sand Filter를 설치하여 방류수의 2/3 정도 공업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이며 방류수조에는 잉어등 물고기가 뛰어노는(실제 81년부터 86년 5월까지 물고기를 기르다 공업용수 재활용으로 현재는 중지상태) 쾌적한 작업장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대기 및 기타 방지시설로 노후시설 교체와 보완으로 살아있는 환경과 푸른 하늘을 지



키기 위하여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연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는 환경관리인들이 있어 마음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환경안전과 공석규관리인을 만나보았다.
“철강공업장에서의 환경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자신들이 맡은바 사명을 다할때 생산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들의 산업장에서의 지위와 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철강공업의 산실로써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는 동부제강은 환경분야에서도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공석규 관리인(현장에서)

표지인물을 말한다

한국수질 보전학회장이시며 서울대 미생물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홍순우박사님을 이달의 표지인물로 모셨다.

홍박사님은 1927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대학원을 수료하셨으며 1963년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다. 그동안 한국미생물학회장, 한국자연보존협회 부회장, 서울대 자연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83년 국민훈장(동백장)을 서훈하셨으며 현재 환경보전협회 이사및 편집위원, 유네스코 동남아지역 미생물학 네트워크 한국대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사및 자연분과 위원장, 대한민국 학술원 정회원, 국제수질보전학회 한국대표 이사로 활약하고 계시다.